

2020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20. 08.



조 사 기 관 | 글로벌리서치

의 료 처 |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목 차

조사목적	6
조사설계	6
응답자 특성	7
차별금지법안 발의 인지 여부	11
차별금지법안 관심 여부	12
차별금지법안 내용 인지 정도	14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 인지 여부	16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반대의견 동의 정도	17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찬성의견 동의 정도	19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동의 정도	2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중복)	2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24
각 사안별 수용여부	26
각 사안별 차별의견	30
각 사안별 찬반 정도	36
국내의 동성혼 찬반의견	40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서비스 거절 사례 차별의견	41
각 사안별 동의 여부	43

그림목차

[그림 1]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발의 인지 여부	11
[그림 2]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정도	12
[그림 3] “차별금지법”에 내용 인지 정도	14
[그림 4] 국내 33개 이상 개별 차별 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남녀 고용평등법 등) 시행 인지여부	16
[그림 5]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 및 제 3의 성 용인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금지 여부	18
[그림 6] 성소수자 및 특정 종교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19
[그림 7]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관한 의견	21
[그림 8]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관한 의견	23
[그림 9]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대한 의견	25
[그림 10] 각 사례별 수용 정도	26
[그림 11]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	30
[그림 12] 각 사례에 대한 찬성 여부	36
[그림 13] 국내 동성혼 찬반여부	40
[그림 14]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절한 사례가 차별인지의 여부	42
[그림 15] 각 항목에 관한 의견	44

표목차

[표 1] 응답자 특성	6
[표 2]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발의 인지 여부	10
[표 3]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정도	12
[표 4] “차별금지법”에 내용 인지 정도	13
[표 5] 국내 33개 이상 개별 차별 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시행 인지여부	15
[표 6]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 및 제3 의 성 용인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금지 여부	17
[표 7] 성소수자 및 특정 종교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19
[표 8]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관한 의견	20
[표 9]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관한 의견	22
[표 10]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대한 의견	24
[표 11] 각 사례별 수용 정도_“남녀”성별 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추가	26
[표 12] 각 사례별 수용 정도_성전환수술하지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이용, 여성스포츠경기 출전	27
[표 13] 각 사례별 수용 정도_유치원, 초중고 교육 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교육	28
[표 14]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직장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30
[표 15]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회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뽑지 않음	31
[표 16]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도덕적 판단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를 반대함	32
[표 17]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종교단체에서 사이비 이단의 출입을 금함	33
[표 18]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의과대 교수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을 남성 동성애 행위라고 밝힘	34
[표 19]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것이라 교육	36
[표 20]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교수, 기자, 소설가, 종교지도자 등이 동성애에 반대 시 손해배상 청구	37
[표 21]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	38
[표 22] 국내 동성혼 찬반여부	39
[표 23]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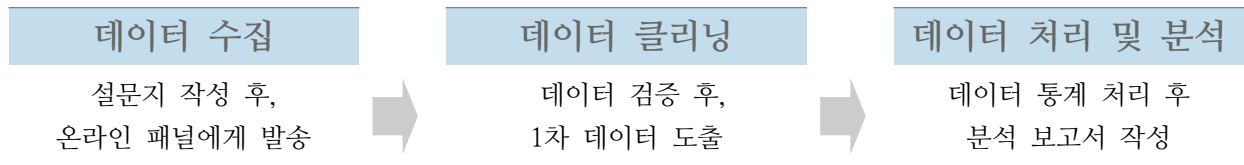
의해 거절한 사례가 차별인지의 여부	41
[표 24] 각 항목에 관한 의견_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	43
[표 25] 각 항목에 관한 의견_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	44
[표 26] 각 항목에 관한 의견_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45
[표 27] 각 항목에 관한 의견_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고(혐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46
[표 28] 각 항목에 관한 의견_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거부감이 들 것 같다	47

제1장. 조사개요

01 조사목적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구성하였다.

‘차별금지법안 인지 여부’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정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인지 여부’, ‘국내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 인지 여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및 ‘각 사례에 대한 찬반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 차별금지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33개 개별 법률이 제정됨
-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 등 23개 사유를 포함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임
- 본 조사는 위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과 사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이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표 본 수	2,000명

조사 기간	2020년 8월 14일(금) ~ 17일(월) (4일 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2.2\%p$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립가중 방식으로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조사수행기관	(주)글로벌리서치

※ 자료 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명)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 사례수(명)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n < 30$)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주의가 필요한 작은 분석단위의 경우 사례수 우측에 ‘*’로 체크함.
- 일부 원/바 차트의 합계가 100.0%가 아닌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제 전체 합은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임.

03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2,000)	100.0
성별	남 자	(994)	49.7
	여 자	(1,006)	50.3
연령	20대	(343)	17.1
	30대	(320)	16.0
	40대	(382)	19.1
	50대	(399)	20.0
	60대 이상	(556)	27.8

직업	자영업	(287)	14.4
	블루칼라	(300)	15.0
	화이트칼라	(626)	31.3
	가정주부	(350)	17.5
	학생	(153)	7.7
	무직/기타	(284)	14.2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2.1
	가톨릭교	(189)	9.4
	불교/원불교	(294)	14.7
	기타 종교	(23)	1.2
	종교 없음	(1,053)	52.6
지역	서울	(386)	19.3
	인천/경기	(622)	31.1
	대전/충청/세종	(203)	10.1
	광주/전라	(200)	10.0
	대구/경북	(198)	9.9
	부산/경남/울산	(306)	15.3
	강원/제주	(85)	4.2
이념 성향	보수	(506)	25.3
	중도	(1,010)	50.5
	진보	(483)	24.2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5.9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34.3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39.9
	전혀 모른다	(399)	20.0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항목	결과
'차별금지법안' 인지여부	• 인지 52.7% > 비인지 47.3%
'차별금지법안' 관심여부	• 관심있다 74.5% > 관심없다 25.5%
'차별금지법안' 내용 인지 정도	•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39.9% >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34.3% > 전혀 모른다 20.0% > 매우 잘 안다 5.9%
개별적 차별금지법 인지여부	• 인지 57.8% > 비인지 42.2%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 공감 68.8% > 비공감 24.8% / 잘 모름 6.4%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찬성	• 비공감 50.6% > 공감 42.2% / 잘 모름 7.1%
포괄적 차별 금지법 문제점 동의 정도	• 소수자나 다수자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69.4% >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17.4% / 잘 모름 13.2%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	• 차별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 금지법으로 충분하다 40.8% >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 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6.9% >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 27.9% / 잘 모름 9.4%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 반대 47.7% > 찬성 39.9% / 잘 모름 12.4%
제 3의 성'젠더'추가	• 반대 53.4% > 찬성 31.9% > 잘 모름 14.7%
성전환수술하지 않는 남성의 여성시설이용 여성스포츠 경기 출전	• 반대 77.0% > 찬성 12.1% > 잘 모름 10.9%

항목	결과
유치원, 초중고 교육 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교육	• 반대 64.7% > 찬성 19.8% / 잘 모름 15.5%
직장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 차별이 아니다 62.3% > 차별이다 28.1% / 잘 모름 9.6%
회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뽑지 않음	• 차별이다 76.6% > 차별이 아니다 17.8% / 잘 모름 5.6%
도덕적 판단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를 반대함	• 차별이 아니다 45.4% > 차별이다 39.4% / 잘 모름 15.2%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함	• 차별이 아니다 73.0% > 차별이다 16.8% / 잘 모름 10.2%
의과대 교수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을 남성 동성애 행위라고 밝힘	• 차별이 아니다 48.9% > 차별이다 34.1% / 잘 모름 17.0%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것이라고 교육	• 반대 61.7% > 찬성 26.6% / 잘 모름 11.7%
동성애 반대 의견 제시 시 손해배상 청구	• 반대 62.7% > 찬성 23.8% / 잘 모름 13.6%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	• 반대 59.4% > 찬성 24.6% / 잘 모름 16.1%
동성혼 찬성반대 정도	• 반대 53.8% > 찬성 34.3% / 잘 모름 11.9%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서비스 거절 사례 차별의견	• 차별이 아니다 58.0% > 차별이다 23.9% / 잘 모름 18.1%

제3장. 조사결과 분석

01 차별금지법안 발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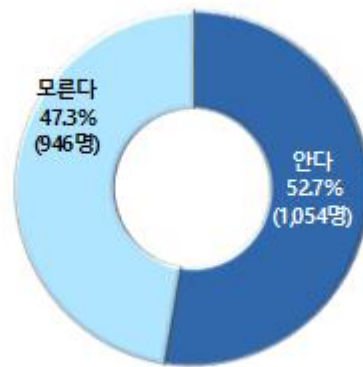
문1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는 52.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1]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발의 인지 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60세 이상(60.9%), 자영업자(62.1%), 기독교(개신교)인(67.8%),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계층(98.1%/매우, 90.3%/어느 정도) 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2]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발의 인지 여부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전 체		사례수(명)	안다	모른다
		(2,000)	52.7	47.3
성별	남 자	(994)	56.2	43.8
	여 자	(1,006)	49.2	50.8
연령	20대	(343)	48.8	51.2
	30대	(320)	47.2	52.8
	40대	(382)	50.4	49.6
	50대	(399)	51.2	48.8
	60대 이상	(556)	60.9	39.1
직업	자영업	(287)	62.1	37.9
	블루칼라	(300)	49.0	51.0
	화이트칼라	(626)	58.7	41.3
	가정주부	(350)	44.3	55.7

	학생	(153)	46.8	53.2
	무직/기타	(284)	47.4	52.6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67.8	32.2
	가톨릭교	(189)	52.1	47.9
	불교/원불교	(294)	54.5	45.5
	기타 종교	(23)	55.9	44.1
	종교 없음	(1,053)	45.9	54.1
지역	서울	(386)	56.7	43.3
	인천/경기	(622)	51.9	48.1
	대전/충청/세종	(203)	53.3	46.7
	광주/전라	(200)	55.4	44.6
	대구/경북	(198)	51.6	48.4
	부산/경남/울산	(306)	50.4	49.6
이념 성향	강원/제주	(85)	43.2	56.8
	보수	(506)	57.3	42.7
	중도	(1,010)	46.7	53.3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진보	(483)	60.4	39.6
	매우 잘 안다	(117)	98.1	1.9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90.3	9.7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39.6	60.4
	전혀 모른다	(399)	0.8	99.2

02 차별금지법안 관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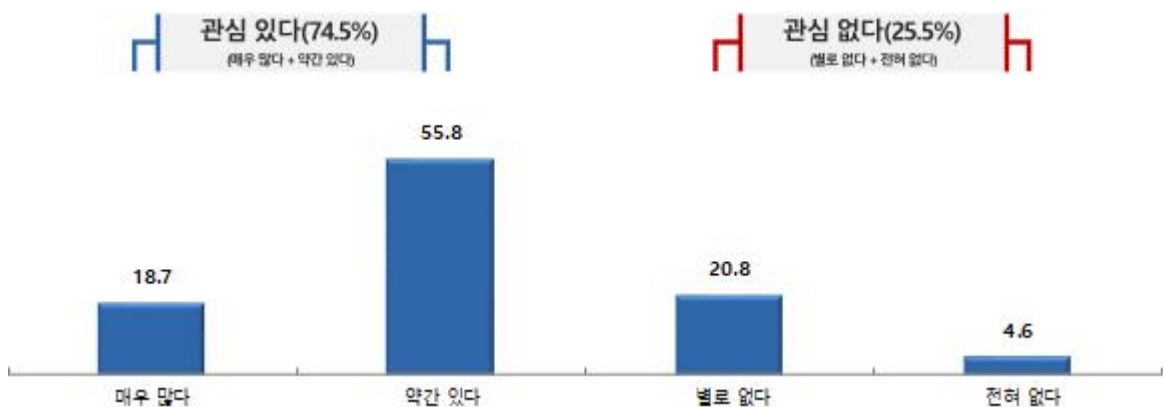
문2

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심 정도는 74.5%가 관심이 있다(18.7%/매우, 55.8%/약간)는 응답을 보여, 관심이 없다는 응답(25.5%)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2]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정도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④ 거의 모든 계층에서 60% 이상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계층에 한해서 관심이 있다는 응답(43.8%)이 상대적으로 낮음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3]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관심 있다	관심 없다
전 체		(2,000)	18.7	55.8	20.8	4.6	74.5	25.5
성별	남 자	(994)	18.3	56.2	20.8	4.7	74.5	25.5
	여 자	(1,006)	19.2	55.3	20.8	4.6	74.5	25.5
연령	20대	(343)	15.1	56.0	24.2	4.7	71.1	28.9
	30대	(320)	12.9	57.0	23.3	6.8	69.9	30.1
	40대	(382)	21.0	53.3	20.7	5.1	74.2	25.8
	50대	(399)	18.8	60.0	17.9	3.4	78.7	21.3
	60대 이상	(556)	22.8	53.7	19.6	3.9	76.5	23.5
직업	자영업	(287)	20.3	59.9	16.5	3.2	80.2	19.8
	블루칼라	(300)	17.4	52.9	21.4	8.2	70.4	29.6
	화이트칼라	(626)	20.5	57.0	18.2	4.2	77.5	22.5
	가정주부	(350)	18.2	53.9	22.1	5.9	72.1	27.9
	학생	(153)	12.1	57.4	28.0	2.5	69.6	30.4
	무직/기타	(284)	18.9	53.3	24.9	2.8	72.3	27.7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9.4	52.7	14.8	3.2	82.1	17.9
	가톨릭교	(189)	17.7	58.2	21.0	3.1	75.9	24.1
	불교/원불교	(294)	21.2	56.4	17.7	4.7	77.6	22.4
	기타 종교	(23)	22.2	65.8	3.0	9.0	88.0	12.0
	종교 없음	(1,053)	13.7	56.2	24.6	5.4	70.0	30.0
지역	서울	(386)	17.8	58.7	17.8	5.7	76.5	23.5
	인천/경기	(622)	18.0	54.1	23.7	4.2	72.1	27.9
	대전/충청/세종	(203)	23.7	50.8	19.0	6.4	74.6	25.4
	광주/전라	(200)	19.4	62.5	15.5	2.5	81.9	18.1
	대구/경북	(198)	15.2	54.7	22.3	7.7	70.0	30.0
	부산/경남/울산	(306)	18.5	56.0	22.1	3.4	74.5	25.5
	강원/제주	(85)	24.1	51.9	22.6	1.4	76.0	24.0
이념 성향	보수	(506)	21.9	48.9	24.3	4.8	70.8	29.2
	중도	(1,010)	15.1	57.3	21.9	5.6	72.5	27.5
	진보	(483)	23.0	59.7	14.9	2.3	82.7	17.3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84.2	9.6	2.7	3.5	93.8	6.2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5.9	64.7	8.6	0.8	90.6	9.4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8.8	64.4	25.5	1.2	73.2	26.8
	전혀 모른다	(399)	7.1	36.6	37.8	18.4	43.8	56.2

03 차별금지법안 내용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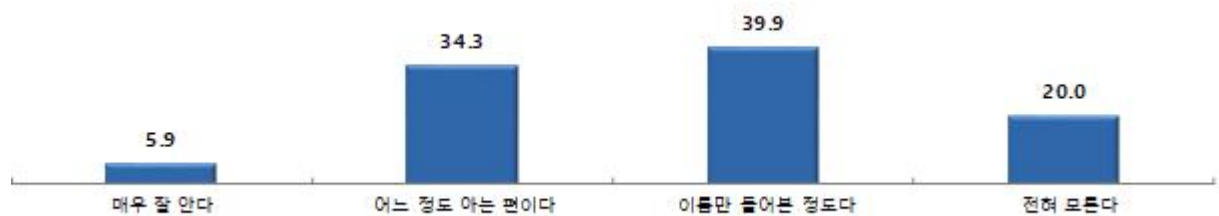
문3

귀하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안다” 5.9%, “어느 정도 아는 편” 34.3%로 40.2%는 알고 있다는 응답을 보인 가운데, “이름만 들어본 정도” 39.9%, “전혀 모름” 20.2%로 59.8%는 모른다는 응답을 보임

[그림 3] “차별금지법”에 내용 인지 정도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자영업자(52.7%), 기독교(개신교)인(54.5%), 등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계층에서 이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4] “차별금지법”에 내용 인지 정도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잘 안다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전혀 모른다
전 체		(2,000)	5.9	34.3	39.9	20.0
성별	남 자	(994)	7.1	37.9	38.6	16.4
	여 자	(1,006)	4.7	30.7	41.1	23.4
연령	20대	(343)	6.1	30.3	37.3	26.3
	30대	(320)	6.9	29.9	36.5	26.7
	40대	(382)	7.5	30.3	42.3	19.9
	50대	(399)	3.4	33.9	42.6	20.1
	60대 이상	(556)	5.8	42.4	39.7	12.1
직업	자영업	(287)	3.8	48.8	34.5	12.8
	블루칼라	(300)	5.2	30.3	41.0	23.6
	화이트칼라	(626)	7.6	36.8	39.4	16.2
	가정주부	(350)	5.9	25.5	44.8	23.8
	학생	(153)	6.4	29.1	37.3	27.3

종교	무직/기타	(284)	4.4	32.1	40.4	23.1
	기독교(개신교)	(441)	11.3	43.2	33.6	11.9
	가톨릭교	(189)	5.9	35.7	41.7	16.8
	불교/원불교	(294)	5.9	35.2	41.0	17.9
	기타 종교	(23)	4.8	38.9	42.2	14.1
	종교 없음	(1,053)	3.6	30.0	41.8	24.6
지역	서울	(386)	7.5	39.5	33.3	19.8
	인천/경기	(622)	4.7	33.5	40.1	21.7
	대전/충청/세종	(203)	5.4	35.8	35.9	23.0
	광주/전라	(200)	6.2	36.6	45.4	11.8
	대구/경북	(198)	8.1	28.2	44.2	19.5
	부산/경남/울산	(306)	5.3	33.2	43.0	18.6
	강원/제주	(85)	4.5	26.4	43.1	26.0
이념 성향	보수	(506)	8.6	37.0	36.0	18.3
	중도	(1,010)	4.2	30.7	40.6	24.5
	진보	(483)	6.4	39.0	42.3	12.2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100.0	0.0	0.0	0.0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0.0	100.0	0.0	0.0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0.0	0.0	100.0	0.0
	전혀 모른다	(399)	0.0	0.0	0.0	100.0

※ 이하 설문을 위해 찬반 설명문을 제시함

차별금지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서 현재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33 개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 등 23 개 사유를 포함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주장〉

1.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차별을 정한 개별법이 존재하나,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모든 차별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4. 성별, 나이, 성적지향 등 모든 차별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의 권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

1. ‘차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위축된다.
2. 현행 33 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다.
3.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소수자의 평등권을 우위에 둬서 역차별과 건전한 가족체계의 파괴가 우려된다.

4. 피해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가해자는 그러한 차별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묻지마 고발’이 남발되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

5. 다양한 인종과 종교들이 혼재해 있는 유럽의 경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높지만,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연방법 차원에서 이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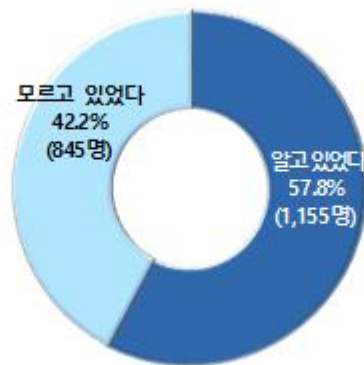
04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 인지 여부

문4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여성법, 외국인고용법 등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오늘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8%임

[그림 4] 국내 33개 이상 개별 차별 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시행 인지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남성(61.7%), 60세 이상(64.8%), 자영업자(66.6%), 기독교(개신교)인(63.3%), 카톨릭교인(65.4%),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계층(92.8%/매우, 76.6%/어느 정도) 등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계층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5] 국내 33개 이상 개별 차별 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시행 인지여부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 체		(2,000)	57.8	42.2
성별	남 자	(994)	61.7	38.3
	여 자	(1,006)	53.9	46.1
연령	20대	(343)	48.0	52.0
	30대	(320)	50.0	50.0
	40대	(382)	58.9	41.1
	50대	(399)	61.5	38.5
	60대 이상	(556)	64.8	35.2
직업	자영업	(287)	66.6	33.4
	블루칼라	(300)	52.7	47.3
	화이트칼라	(626)	64.0	36.0
	가정주부	(350)	50.8	49.2
	학생	(153)	41.3	58.7
	무직/기타	(284)	58.1	41.9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63.3	36.7
	가톨릭교	(189)	65.4	34.6
	불교/원불교	(294)	59.1	40.9
	기타 종교	(23)	54.9	45.1
	종교 없음	(1,053)	53.8	46.2
지역	서울	(386)	60.2	39.8
	인천/경기	(622)	54.2	45.8
	대전/충청/세종	(203)	59.5	40.5
	광주/전라	(200)	60.9	39.1
	대구/경북	(198)	58.5	41.5
	부산/경남/울산	(306)	57.6	42.4
	강원/제주	(85)	60.2	39.8
이념 성향	보수	(506)	61.8	38.2
	중도	(1,010)	52.4	47.6
	진보	(483)	64.7	35.3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92.8	7.2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76.6	23.4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49.8	50.2
	전혀 모른다	(399)	31.0	69.0

05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반대의견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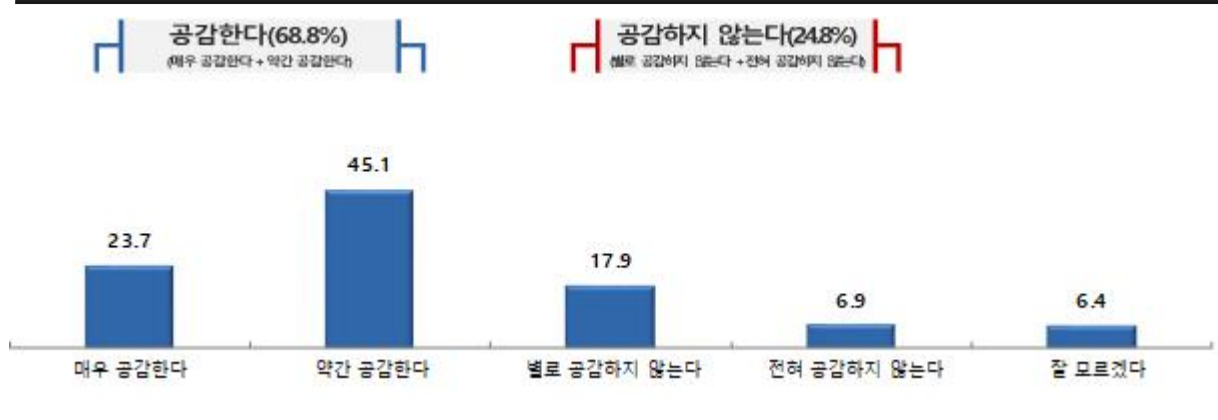
문5

차별금지법과 관련,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33개 이상 이미 실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개별법을 보완하면 되므로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성소수자와 제3의 성을 용인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8.8%가 공감(23.7%/매우, 45.1%/약간)한다는 의견을 보임

[그림 5]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 및 제 3의 성 용인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금지 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60% 이상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인 가운데,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계층에서도 54.7%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임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6] 차별금지법 관련, 성소수자 및 제3의 성 용인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금지 여부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23.7	45.1	17.9	6.9	68.8	24.8	6.4
성별	남 자	(994)	25.4	45.1	17.5	7.7	70.4	25.2	4.3
	여 자	(1,006)	22.0	45.2	18.3	6.1	67.2	24.4	8.5
연령	20대	(343)	25.4	42.8	17.7	5.4	68.3	23.1	8.6
	30대	(320)	20.1	42.9	20.7	8.9	63.0	29.6	7.4
	40대	(382)	22.5	43.3	19.8	8.3	65.8	28.2	6.0
	50대	(399)	22.3	46.2	16.9	8.7	68.5	25.6	5.9
	60대 이상	(556)	26.4	48.4	15.8	4.4	74.7	20.1	5.1
직업	자영업	(287)	20.6	48.8	15.7	8.6	69.4	24.3	6.3
	블루칼라	(300)	22.6	41.1	20.0	8.4	63.7	28.4	8.0
	화이트칼라	(626)	22.1	47.9	19.1	7.7	70.0	26.7	3.3
	가정주부	(350)	25.6	43.9	17.3	5.2	69.5	22.5	7.9
	학생	(153)	32.0	38.9	14.2	5.2	70.9	19.4	9.7
	무직/기타	(284)	24.4	44.5	18.0	4.8	68.9	22.9	8.2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36.1	37.2	13.0	9.5	73.3	22.6	4.1
	가톨릭교	(189)	23.7	48.0	19.8	5.8	71.7	25.5	2.8
	불교/원불교	(294)	17.9	50.4	19.0	5.5	68.4	24.5	7.1
	기타 종교	(23)	27.5	34.4	9.5	9.4	61.9	18.9	19.2
	종교 없음	(1,053)	20.0	46.7	19.5	6.3	66.7	25.8	7.6

지역	서울	(386)	24.8	50.3	13.9	5.0	75.1	18.9	6.0
	인천/경기	(622)	22.7	44.9	18.1	6.0	67.6	24.1	8.3
	대전/충청/세종	(203)	20.7	47.0	17.0	7.3	67.7	24.4	7.9
	광주/전라	(200)	26.8	40.0	19.4	11.0	66.8	30.3	2.9
	대구/경북	(198)	28.7	37.8	20.3	6.5	66.4	26.8	6.8
	부산/경남/울산	(306)	20.6	45.6	18.7	10.3	66.2	29.0	4.8
	강원/제주	(85)	24.8	46.2	24.4	0.0	71.0	24.4	4.6
이념 성향	보수	(506)	32.3	42.1	15.6	7.2	74.4	22.8	2.8
	중도	(1,010)	21.6	46.3	17.4	5.5	67.9	22.9	9.2
	진보	(483)	18.9	45.9	21.3	9.5	64.8	30.8	4.4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59.9	18.3	6.6	14.2	78.2	20.8	1.0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5.8	49.3	16.7	7.4	75.0	24.1	0.9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18.1	51.0	19.8	5.4	69.1	25.2	5.7
	전혀 모른다	(399)	20.4	34.3	19.5	6.8	54.7	26.3	18.9

06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찬성의견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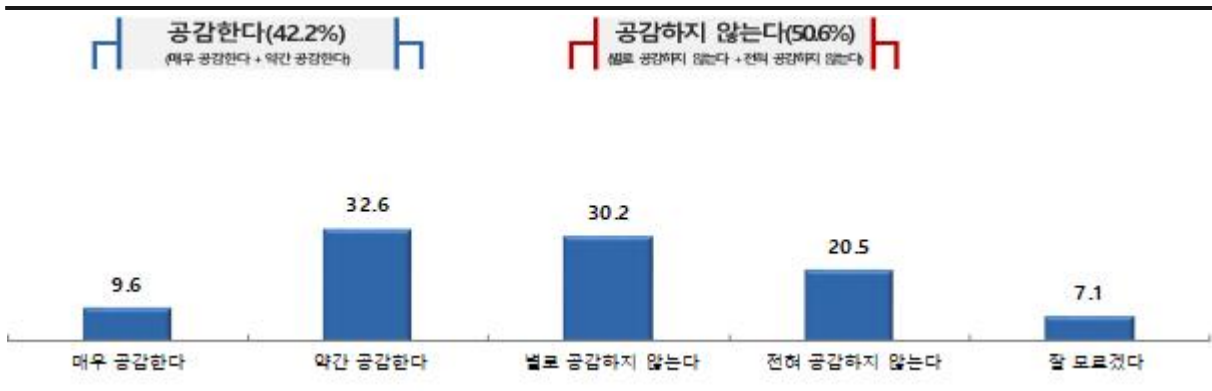
문6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나 신천지 등의 종교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 ▶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6%(20.5%/전혀, 20.2%/별로)로 공감한다는 의견(42.2%)보다 높음

[그림 6] 성소수자 및 특정 종교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기독교(개신교)인(60.9%), 보수층(62.9%)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7] 성소수자 및 특정 종교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9.6	32.6	30.2	20.5	42.2	50.6	7.1
성별	남 자	(994)	9.8	32.0	30.5	22.7	41.8	53.2	5.0
	여 자	(1,006)	9.5	33.2	29.9	18.2	42.7	48.1	9.2
연령	20대	(343)	9.9	34.5	25.1	20.9	44.4	45.9	9.6
	30대	(320)	8.5	31.5	29.2	19.9	40.0	49.1	10.9
	40대	(382)	10.0	32.4	32.1	20.0	42.5	52.1	5.4
	50대	(399)	11.2	32.6	31.8	18.8	43.8	50.7	5.5
	60대 이상	(556)	8.7	32.2	31.4	22.0	40.9	53.4	5.7
직업	자영업	(287)	8.9	30.0	34.3	18.3	38.9	52.5	8.6
	블루칼라	(300)	12.3	33.4	27.8	20.1	45.7	47.9	6.4
	화이트칼라	(626)	8.3	34.1	32.2	21.7	42.4	53.9	3.6
	가정주부	(350)	9.1	30.7	30.1	22.2	39.8	52.3	7.9
	학생	(153)	9.0	34.2	24.5	20.1	43.1	44.6	12.3
	무직/기타	(284)	11.7	32.4	27.2	18.3	44.1	45.6	10.3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9.0	24.3	24.5	36.3	33.3	60.9	5.8
	가톨릭교	(189)	9.1	33.5	36.6	15.9	42.6	52.5	4.9
	불교/원불교	(294)	13.2	37.3	31.8	12.2	50.5	44.0	5.5
	기타 종교	(23)	19.8	21.5	18.0	16.4	41.3	34.5	24.3
	종교 없음	(1,053)	8.8	34.9	31.2	17.0	43.6	48.2	8.1
지역	서울	(386)	8.8	33.2	30.0	22.4	42.0	52.4	5.6
	인천/경기	(622)	8.8	31.0	31.2	19.5	39.8	50.6	9.6
	대전/충청/세종	(203)	8.3	35.4	29.9	18.3	43.6	48.3	8.1
	광주/전라	(200)	12.5	33.8	25.3	25.0	46.4	50.3	3.3
	대구/경북	(198)	9.0	28.9	30.6	24.2	37.9	54.7	7.4
	부산/경남/울산	(306)	9.6	35.0	32.2	18.0	44.5	50.2	5.3
	강원/제주	(85)	17.9	32.0	27.8	13.2	49.9	41.0	9.1
이념 성향	보수	(506)	10.3	23.6	31.6	31.3	33.9	62.9	3.2
	중도	(1,010)	7.9	34.5	30.5	17.0	42.4	47.5	10.2
	진보	(483)	12.7	38.0	28.2	16.3	50.7	44.4	4.9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35.7	12.7	8.2	41.1	48.4	49.3	2.3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10.6	40.9	26.2	21.2	51.5	47.4	1.1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7.0	33.7	36.4	16.2	40.7	52.6	6.7
	전혀 모른다	(399)	5.6	21.9	31.1	21.6	27.6	52.7	19.8

07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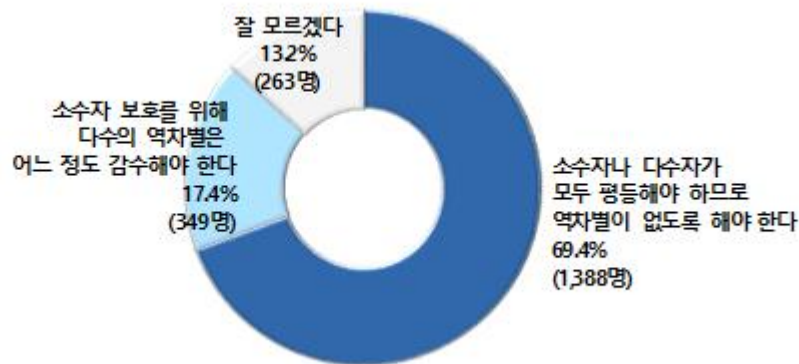
문7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은 다음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 ▶ ‘다수의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수자나 다수자가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에 머무름

[그림 7]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관한 의견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모든 계층에서 60% 이상 “다수의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8] 소수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관한 의견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소수자나 다수자가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69.4	17.4	13.2
성별	남 자	(994)	72.5	16.6	10.9
	여 자	(1,006)	66.3	18.3	15.4
연령	20대	(343)	67.7	18.5	13.9
	30대	(320)	66.1	18.5	15.4

	40대	(382)	70.4	15.5	14.1
	50대	(399)	67.3	18.7	14.0
	60대 이상	(556)	73.2	16.6	10.1
직업	자영업	(287)	66.2	21.0	12.8
	블루칼라	(300)	66.7	19.6	13.7
	화이트칼라	(626)	71.2	17.2	11.6
	가정주부	(350)	68.3	18.0	13.7
	학생	(153)	66.7	15.4	17.9
	무직/기타	(284)	74.3	12.4	13.2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70.1	16.2	13.7
	가톨릭교	(189)	71.4	19.4	9.2
	불교/원불교	(294)	63.0	24.9	12.1
	기타 종교	(23)	67.3	13.5	19.2
	종교 없음	(1,053)	70.6	15.6	13.8
지역	서울	(386)	70.2	18.0	11.8
	인천/경기	(622)	67.2	16.1	16.6
	대전/충청/세종	(203)	68.3	21.6	10.1
	광주/전라	(200)	73.7	16.3	10.0
	대구/경북	(198)	71.6	17.8	10.6
	부산/경남/울산	(306)	67.6	17.5	14.8
	강원/제주	(85)	75.6	16.1	8.3
이념 성향	보수	(506)	70.1	19.5	10.4
	중도	(1,010)	66.6	17.4	16.0
	진보	(483)	74.5	15.4	10.0
차별금지 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78.1	16.4	5.5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71.4	22.2	6.4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70.6	16.6	12.8
	전혀 모른다	(399)	61.0	11.3	27.7

08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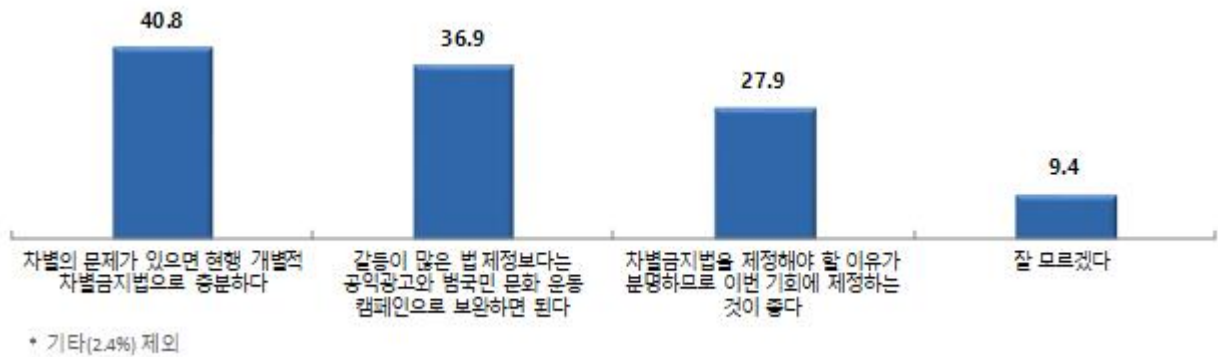
문8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복 가능)

- ④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40.8%,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 36.9%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부정 의견이 78.9%로 압도적인 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27.9%,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과 보완을 통해 시행했으면 한다”는 의견 0.5% 등 긍정 의견은 28.9%에 머무름

[그림 8]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관한 의견

(Base : 전체, N=2,000, 단위 : 중복%)



- ※ 기타 : 기존의 법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시행했으면 한다(0.8%)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과 보완을 통해 시행했으면 한다(0.5%)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0.3%)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었을 때 시행했으면 한다(0.2%)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강력한 처벌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했으면 한다(0.2%)
 차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0.2%)
 역차별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0.1%)
 필요시마다 현행법에 관련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했으면 한다(0.1%)

- ➡ 모든 계층에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혹은 “범국민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9]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관한 의견

(단위 : 중복%)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기타
전 체		(2,000)	40.8	36.9	27.9	9.4	2.4
성별	남 자	(994)	46.5	36.6	26.9	7.0	2.4
	여 자	(1,006)	35.1	37.2	28.8	11.9	2.4
연령	20대	(343)	39.4	30.2	30.3	12.0	3.7
	30대	(320)	43.1	37.2	28.9	10.0	3.4
	40대	(382)	38.6	36.4	31.3	8.3	2.6
	50대	(399)	37.3	38.1	29.6	9.3	2.1
	60대 이상	(556)	44.2	40.3	22.1	8.4	1.2
직업	자영업	(287)	43.2	38.5	25.0	8.2	1.5
	블루칼라	(300)	42.3	31.3	34.0	11.3	1.5
	화이트칼라	(626)	42.7	38.2	27.7	7.1	2.8
	가정주부	(350)	33.6	41.6	25.1	11.9	1.0

	학생	(153)	42.3	27.7	26.8	11.4	4.9
	무직/기타	(284)	40.6	37.7	28.6	9.9	3.9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43.8	42.8	21.4	7.3	4.2
	가톨릭교	(189)	46.9	37.4	29.7	4.4	1.8
	불교/원불교	(294)	39.5	33.8	33.2	9.2	1.3
	기타 종교	(23)	14.3	33.9	34.5	23.2	3.7
	종교 없음	(1,053)	39.3	35.3	28.6	11.0	2.0
지역	서울	(386)	45.6	36.6	25.3	9.0	1.9
	인천/경기	(622)	39.6	35.1	27.8	10.4	2.5
	대전/충청/세종	(203)	38.4	34.8	32.4	10.2	3.1
	광주/전라	(200)	39.2	39.7	29.8	4.9	1.9
	대구/경북	(198)	43.7	39.5	23.7	13.5	2.7
	부산/경남/울산	(306)	41.6	39.6	27.0	7.7	2.1
	강원/제주	(85)	27.4	34.5	37.5	10.4	3.9
이념 성향	보수	(506)	49.5	42.5	20.6	5.4	2.7
	중도	(1,010)	39.0	35.5	27.2	13.2	1.7
	진보	(483)	35.5	33.9	37.0	5.7	3.5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48.5	29.1	40.1	2.3	7.5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45.8	36.6	32.4	2.8	3.0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39.5	39.3	26.5	9.5	1.2
	전혀 모른다	(399)	32.4	35.0	19.3	22.8	2.4

0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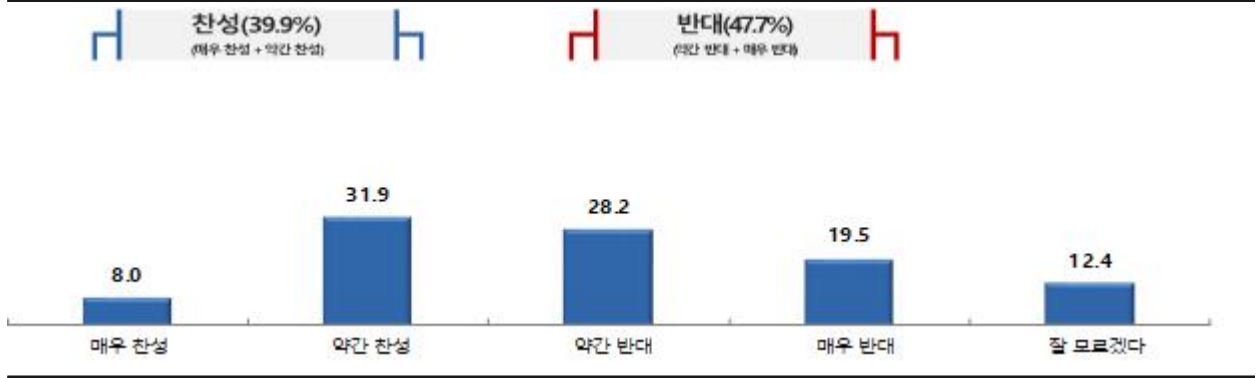
문9

지금까지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귀하는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7.7%(19.5%/매우, 28.2%/약간)로 “찬성한다”는 의견(39.9%)보다 높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은 12.4%임

[그림 9]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대한 의견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남성(52.7%), 60세 이상(55.0%), 기독교(개신교)인(60.6%), 보수층(61.4%)에서 특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불교(원불교)인(찬성 : 50.1% > 반대 : 40.0%), 강원/제주(찬성 : 49.2% > 반대 : 33.1%), 진보계층(찬성 : 50.7% > 반대 : 42.5%)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남
- ▶ 차별금지법 인지자들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10]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대한 의견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8.0	31.9	28.2	19.5	39.9	47.7	12.4
성별	남 자	(994)	8.8	29.2	29.6	23.1	38.0	52.7	9.3
	여 자	(1,006)	7.3	34.5	26.7	16.0	41.8	42.8	15.4
연령	20대	(343)	9.8	31.6	22.3	19.0	41.4	41.3	17.3
	30대	(320)	6.5	31.8	28.1	17.6	38.3	45.7	16.0
	40대	(382)	9.0	36.6	25.2	18.0	45.5	43.2	11.3
	50대	(399)	9.2	31.9	31.1	17.9	41.2	49.0	9.8
	60대 이상	(556)	6.3	28.9	31.9	23.2	35.2	55.0	9.8
직업	자영업	(287)	7.1	29.3	33.7	16.8	36.5	50.5	13.0
	블루칼라	(300)	10.9	33.1	28.0	16.6	44.0	44.6	11.4
	화이트칼라	(626)	7.1	32.6	28.6	22.0	39.7	50.5	9.7
	가정주부	(350)	6.2	31.9	28.5	19.2	38.1	47.7	14.1
	학생	(153)	9.0	30.2	20.5	19.9	39.2	40.4	20.4
	무직/기타	(284)	9.7	32.3	25.7	20.2	42.1	45.9	12.1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5.5	26.5	25.7	34.9	32.0	60.6	7.4
	가톨릭교	(189)	10.4	31.2	34.6	13.5	41.6	48.2	10.2
	불교/원불교	(294)	11.8	38.3	28.0	12.0	50.1	40.0	9.9
	기타 종교	(23)	25.2	13.7	11.6	16.8	39.0	28.3	32.7
	종교 없음	(1,053)	7.3	32.8	28.5	16.4	40.1	44.8	15.1
지역	서울	(386)	7.4	31.9	29.9	18.7	39.2	48.6	12.2
	인천/경기	(622)	6.9	30.8	28.5	19.1	37.8	47.6	14.6
	대전/충청/세종	(203)	8.1	37.0	26.7	15.8	45.1	42.4	12.5

	광주/전라	(200)	10.0	34.1	24.7	26.0	44.2	50.7	5.2
	대구/경북	(198)	5.8	28.9	28.6	23.9	34.7	52.5	12.8
	부산/경남/울산	(306)	8.4	31.3	31.1	18.3	39.7	49.4	10.9
	강원/제주	(85)	18.2	31.0	18.6	14.4	49.2	33.1	17.7
이념 성향	보수	(506)	8.7	23.2	32.8	28.5	31.9	61.4	6.7
	중도	(1,010)	6.1	32.7	25.9	17.5	38.8	43.4	17.8
	진보	(483)	11.3	39.4	28.0	14.5	50.7	42.5	6.8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35.4	14.0	4.4	43.3	49.3	47.7	3.0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9.5	39.1	24.9	22.2	48.6	47.1	4.3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4.8	33.5	34.5	15.3	38.3	49.8	11.9
	전혀 모른다	(399)	4.1	21.5	28.0	16.5	25.5	44.5	30.0

10 각 사안별 수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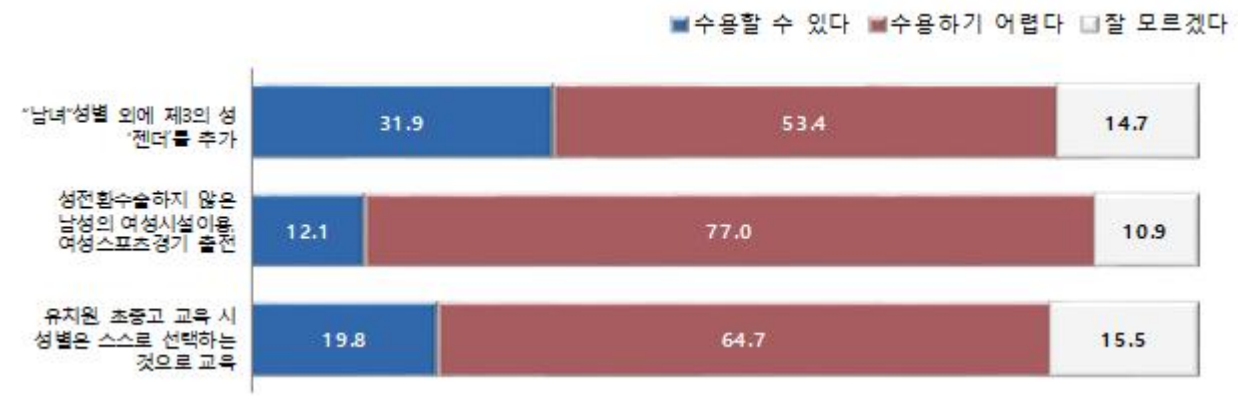
문10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귀하는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용하기 어려우십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 ‘제3의 성/젠더 추가’ 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3.4%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31.9%)보다 높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7%
- ▶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트랜스젠더의 여성시설 이용 혹은 여성스포츠경기 출전 허용’ 의견에 대해서는 77.0%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임
- ▶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성 정체성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64.7%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임

[그림 10] 각 사례별 수용 정도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제3의 성/젠더 추가’ 안에 대해서 자영업(61.8%), 기독교(개신교)인(70.5%), 보수층(68.1%)에서 특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음

- ▶ ‘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트랜스젠더의 여성시설 이용 혹은 여성스포츠경기 출전 허용’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성 정체성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11] 각 사례별 수용 정도 “남녀”성별 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추가 (단위:%)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성별	전 체	(2,000)	31.9	53.4	14.7
	남 자	(994)	29.4	57.6	13.0
	여 자	(1,006)	34.4	49.1	16.5
연령	20대	(343)	35.3	47.2	17.6
	30대	(320)	33.1	55.4	11.5
	40대	(382)	36.2	50.1	13.7
	50대	(399)	32.0	52.9	15.2
	60대 이상	(556)	26.1	58.6	15.3
직업	자영업	(287)	27.2	61.8	11.0
	블루칼라	(300)	33.1	49.5	17.4
	화이트칼라	(626)	33.1	55.8	11.1
	가정주부	(350)	34.2	51.4	14.4
	학생	(153)	30.7	49.8	19.5
	무직/기타	(284)	30.5	48.0	21.5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1.7	70.5	7.8
	가톨릭교	(189)	34.0	52.6	13.4
	불교/원불교	(294)	34.3	45.1	20.6
	기타 종교	(23)	25.1	52.3	22.6
	종교 없음	(1,053)	35.3	48.7	16.1
지역	서울	(386)	30.8	58.8	10.4
	인천/경기	(622)	33.0	51.7	15.3
	대전/충청/세종	(203)	36.0	46.7	17.3
	광주/전라	(200)	32.0	53.9	14.1
	대구/경북	(198)	25.3	57.6	17.0
	부산/경남/울산	(306)	29.7	55.0	15.3
	강원/제주	(85)	42.1	39.5	18.4
이념 성향	보수	(506)	23.6	68.1	8.3
	중도	(1,010)	32.0	49.7	18.2
	진보	(483)	40.3	45.5	14.2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47.1	51.3	1.6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34.2	57.2	8.7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30.2	52.8	17.0

	전혀 모른다	(399)	26.8	48.6	24.6
--	--------	-------	------	------	------

[표 12] 각 사례별 수용 정도_성전환수술하지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이용, 여성스포츠경기 출전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12.1	77.0	10.9
성별	남 자	(994)	12.7	77.3	9.9
	여 자	(1,006)	11.5	76.7	11.9
연령	20대	(343)	15.4	71.1	13.4
	30대	(320)	10.3	79.2	10.5
	40대	(382)	15.2	73.5	11.2
	50대	(399)	10.6	78.8	10.6
	60대 이상	(556)	10.0	80.4	9.6
직업	자영업	(287)	9.3	81.9	8.8
	블루칼라	(300)	11.4	76.6	12.0
	화이트칼라	(626)	13.2	77.4	9.4
	가정주부	(350)	11.1	77.8	11.1
	학생	(153)	15.3	65.6	19.1
	무직/기타	(284)	12.6	76.9	10.5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9.0	83.9	7.1
	가톨릭교	(189)	15.8	74.5	9.7
	불교/원불교	(294)	15.7	75.3	9.0
	기타 종교	(23)	12.9	67.0	20.1
	종교 없음	(1,053)	11.7	75.2	13.0
지역	서울	(386)	12.1	76.5	11.4
	인천/경기	(622)	10.8	78.6	10.6
	대전/충청/세종	(203)	13.2	78.2	8.6
	광주/전라	(200)	15.8	72.7	11.6
	대구/경북	(198)	9.4	80.3	10.3
	부산/경남/울산	(306)	13.2	74.9	11.9
	강원/제주	(85)	12.9	74.6	12.5
이념 성향	보수	(506)	10.2	83.9	5.9
	중도	(1,010)	12.0	74.0	14.0
	진보	(483)	14.2	76.0	9.7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25.7	72.2	2.0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15.0	76.2	8.8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9.8	80.1	10.2
	전혀 모른다	(399)	7.7	73.7	18.6

[표 13] 각 사례별 수용 정도_유치원, 초중고 교육 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교육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19.8	64.7	15.5
성별	남 자	(994)	18.7	67.5	13.9
	여 자	(1,006)	20.9	61.9	17.2
연령	20대	(343)	27.6	52.3	20.1
	30대	(320)	21.3	61.9	16.8
	40대	(382)	19.3	64.9	15.9
	50대	(399)	19.3	65.4	15.3
	60대 이상	(556)	14.9	73.2	12.0
직업	자영업	(287)	18.0	69.3	12.8
	블루칼라	(300)	21.6	64.2	14.2
	화이트칼라	(626)	21.7	64.3	14.0
	가정주부	(350)	16.3	67.1	16.6
	학생	(153)	23.9	50.8	25.3
	무직/기타	(284)	17.6	65.7	16.7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12.6	77.4	10.0
	가톨릭교	(189)	22.9	60.4	16.7
	불교/원불교	(294)	22.4	64.2	13.4
	기타 종교	(23)	14.8	56.7	28.5
	종교 없음	(1,053)	21.6	60.4	17.9
지역	서울	(386)	20.5	65.0	14.4
	인천/경기	(622)	19.0	65.0	16.0
	대전/충청/세종	(203)	24.4	58.7	16.9
	광주/전라	(200)	20.7	66.1	13.2
	대구/경북	(198)	16.9	70.1	13.0
	부산/경남/울산	(306)	17.6	65.3	17.1
	강원/제주	(85)	23.7	56.5	19.8
이념 성향	보수	(506)	13.4	77.0	9.6
	중도	(1,010)	19.4	61.2	19.4
	진보	(483)	27.3	58.9	13.8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33.3	61.2	5.5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2.7	66.8	10.5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17.7	65.6	16.6
	전혀 모른다	(399)	14.9	60.2	24.9

11 각 사안별 차별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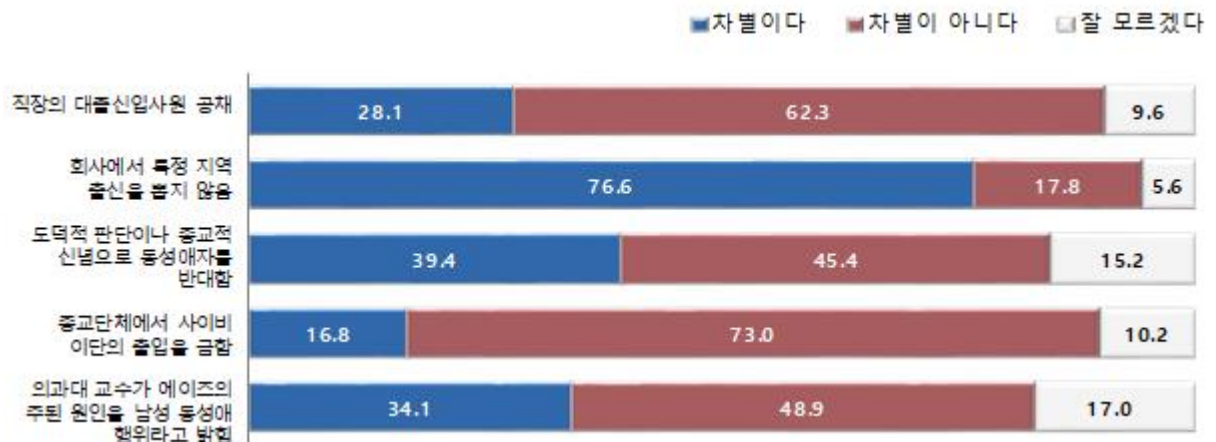
문11

귀하는 다음의 각각에 대해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62.3%
- ▶ ‘특정 지역 채용 배제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차별이다”라는 의견이 76.6%
- ▶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의한 동성애자 반대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5.4%, “차별이다”라는 의견이 39.4%
- ▶ ‘종교단체의 이단 출입금지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73.0%
- ▶ ‘의대교수가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의 발병원인이라 강의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8.9%, “차별이다”라는 의견은 34.1%

[그림 11]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대졸 신입사원 공채의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임
- ▶ ‘특정 지역 채용 배제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별이다”라는 의견을 보임
- ▶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의한 동성애자 반대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소폭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차별 : 46.6% > 차별 아님 : 34.8%), 진보계층(차별 : 48.9% > 차별 아님 : 39.2%)에서는 “차별이다”라는 의견이 높음
- ▶ ‘종교단체의 이단 출입금지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임
- ▶ ‘의대교수가 남성동성애자가 에이즈의 발병원인이라 강의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소폭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14]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직장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단위:%)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28.1	62.3	9.6
성별	남 자	(994)	25.9	65.7	8.4
	여 자	(1,006)	30.3	58.9	10.8
연령	20대	(343)	25.9	61.2	12.9
	30대	(320)	27.7	61.5	10.9
	40대	(382)	32.5	55.8	11.7
	50대	(399)	28.6	64.2	7.2
	60대 이상	(556)	26.4	66.4	7.2
직업	자영업	(287)	24.0	68.8	7.2
	블루칼라	(300)	31.9	56.6	11.5
	화이트칼라	(626)	26.4	66.9	6.6
	가정주부	(350)	31.1	59.7	9.2
	학생	(153)	21.9	64.5	13.6
	무직/기타	(284)	31.5	53.5	15.1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7.1	65.2	7.7
	가톨릭교	(189)	22.8	67.5	9.7
	불교/원불교	(294)	30.3	63.5	6.2
	기타 종교	(23)	40.8	36.6	22.6
	종교 없음	(1,053)	28.6	60.3	11.1
지역	서울	(386)	27.9	62.8	9.2
	인천/경기	(622)	25.9	63.5	10.6
	대전/충청/세종	(203)	29.2	63.6	7.2
	광주/전라	(200)	32.4	59.7	7.9
	대구/경북	(198)	29.1	58.2	12.7
	부산/경남/울산	(306)	26.1	65.9	8.1
	강원/제주	(85)	36.8	50.8	12.4
이념 성향	보수	(506)	23.8	69.0	7.2
	중도	(1,010)	29.0	59.2	11.9
	진보	(483)	30.8	61.8	7.5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40.1	55.1	4.8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5.3	68.6	6.1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29.9	59.3	10.8
	전혀 모른다	(399)	25.8	59.4	14.8

[표 15]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회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뽑지 않음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76.6	17.8	5.6
성별	남 자	(994)	74.5	20.1	5.4
	여 자	(1,006)	78.7	15.6	5.7
연령	20대	(343)	76.1	18.1	5.8
	30대	(320)	73.4	22.0	4.7
	40대	(382)	76.5	18.9	4.6
	50대	(399)	77.9	16.4	5.7
	60대 이상	(556)	78.0	15.6	6.4
직업	자영업	(287)	75.0	20.4	4.7
	블루칼라	(300)	73.8	18.9	7.3
	화이트칼라	(626)	78.4	17.9	3.6
	가정주부	(350)	77.4	14.3	8.3
	학생	(153)	76.3	16.3	7.4
	무직/기타	(284)	76.5	19.0	4.5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75.8	18.9	5.4
	가톨릭교	(189)	78.2	17.3	4.5
	불교/원불교	(294)	76.5	18.8	4.7
	기타 종교	(23)	63.3	21.1	15.7
	종교 없음	(1,053)	77.1	17.1	5.8
지역	서울	(386)	76.5	18.0	5.6
	인천/경기	(622)	77.1	16.1	6.8
	대전/충청/세종	(203)	77.4	15.9	6.7
	광주/전라	(200)	83.8	13.4	2.9
	대구/경북	(198)	70.1	25.9	4.0
	부산/경남/울산	(306)	75.6	19.4	5.1
	강원/제주	(85)	74.8	19.9	5.3
이념 성향	보수	(506)	72.9	21.6	5.5
	중도	(1,010)	74.8	18.2	7.0
	진보	(483)	84.4	12.9	2.7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65.3	29.8	4.9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77.1	19.9	3.1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78.1	16.6	5.3
	전혀 모른다	(399)	76.3	13.1	10.6

[표 16]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도덕적 판단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를 반대함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39.4	45.4	15.2
성별	남 자	(994)	35.3	50.5	14.2
	여 자	(1,006)	43.5	40.3	16.2
연령	20대	(343)	46.6	34.8	18.6
	30대	(320)	40.3	45.4	14.3
	40대	(382)	42.9	43.1	14.0
	50대	(399)	37.4	47.0	15.6
	60대 이상	(556)	33.6	52.2	14.2
직업	자영업	(287)	32.2	54.8	13.0
	블루칼라	(300)	42.1	41.6	16.3
	화이트칼라	(626)	41.1	47.8	11.1
	가정주부	(350)	39.7	43.9	16.4
	학생	(153)	35.8	38.9	25.2
	무직/기타	(284)	41.7	39.7	18.6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4.2	62.5	13.3
	가톨릭교	(189)	37.8	43.0	19.2
	불교/원불교	(294)	42.9	43.0	14.2
	기타 종교	(23)	45.2	30.2	24.6
	종교 없음	(1,053)	45.0	39.6	15.4
지역	서울	(386)	43.7	43.0	13.3
	인천/경기	(622)	35.3	47.9	16.7
	대전/충청/세종	(203)	41.6	44.6	13.8
	광주/전라	(200)	44.6	39.2	16.2
	대구/경북	(198)	29.5	54.3	16.1
	부산/경남/울산	(306)	41.1	44.8	14.2
	강원/제주	(85)	49.6	35.2	15.2
이념 성향	보수	(506)	29.6	61.0	9.5
	중도	(1,010)	39.8	40.5	19.7
	진보	(483)	48.9	39.2	11.9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41.2	55.2	3.6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40.9	50.6	8.5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37.4	44.3	18.3
	전혀 모른다	(399)	40.3	35.6	24.1

[표 17]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종교단체에서 사이비 이단의 출입을 금함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16.8	73.0	10.2
성별	남 자	(994)	19.9	70.0	10.1
	여 자	(1,006)	13.8	76.0	10.2
연령	20대	(343)	16.4	73.7	9.9
	30대	(320)	13.2	75.5	11.3
	40대	(382)	17.7	72.2	10.1
	50대	(399)	17.1	72.4	10.5
	60대 이상	(556)	18.5	72.1	9.4
직업	자영업	(287)	15.0	74.0	11.0
	블루칼라	(300)	17.4	68.9	13.6
	화이트칼라	(626)	16.7	74.7	8.6
	가정주부	(350)	13.8	77.0	9.3
	학생	(153)	18.1	68.8	13.1
	무직/기타	(284)	21.7	69.8	8.5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12.1	82.5	5.4
	가톨릭교	(189)	18.2	72.8	9.0
	불교/원불교	(294)	23.1	67.2	9.7
	기타 종교	(23)	49.8	39.7	10.5
	종교 없음	(1,053)	16.1	71.4	12.5
지역	서울	(386)	21.6	70.5	7.9
	인천/경기	(622)	12.3	76.9	10.9
	대전/충청/세종	(203)	13.4	76.5	10.1
	광주/전라	(200)	21.4	70.2	8.4
	대구/경북	(198)	12.5	75.0	12.5
	부산/경남/울산	(306)	19.1	70.1	10.8
	강원/제주	(85)	28.4	60.0	11.6
이념 성향	보수	(506)	16.0	77.7	6.3
	중도	(1,010)	16.4	70.7	12.9
	진보	(483)	18.7	72.8	8.5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32.3	62.5	5.2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17.7	74.9	7.5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15.7	74.6	9.7
	전혀 모른다	(399)	13.1	69.6	17.3

[표 18]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의과대 교수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을 남성 동성애 행위라고 밝힘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34.1	48.9	17.0
성별	남 자	(994)	36.1	47.9	16.0
	여 자	(1,006)	32.2	49.9	17.9
연령	20대	(343)	39.7	39.9	20.4
	30대	(320)	35.3	46.5	18.2
	40대	(382)	37.3	43.6	19.1
	50대	(399)	37.0	49.1	13.9
	60대 이상	(556)	25.7	59.4	14.9
직업	자영업	(287)	30.7	53.0	16.3
	블루칼라	(300)	38.0	46.3	15.7
	화이트칼라	(626)	35.2	49.7	15.0
	가정주부	(350)	28.0	55.3	16.7
	학생	(153)	35.3	41.2	23.5
	무직/기타	(284)	38.0	42.1	19.9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7.2	61.5	11.3
	가톨릭교	(189)	37.9	47.1	15.1
	불교/원불교	(294)	32.1	49.6	18.3
	기타 종교	(23)	26.7	59.1	14.2
	종교 없음	(1,053)	37.1	43.5	19.4
지역	서울	(386)	32.7	48.8	18.5
	인천/경기	(622)	34.2	49.8	16.0
	대전/충청/세종	(203)	43.2	39.6	17.2
	광주/전라	(200)	36.0	48.7	15.3
	대구/경북	(198)	23.2	60.0	16.8
	부산/경남/울산	(306)	33.4	47.6	19.0
	강원/제주	(85)	42.3	44.8	13.0
이념 성향	보수	(506)	26.2	60.8	12.9
	중도	(1,010)	34.6	45.3	20.1
	진보	(483)	41.4	44.0	14.6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35.7	58.2	6.2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34.1	55.7	10.2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34.1	46.0	19.9
	전혀 모른다	(399)	33.9	40.4	25.7

12 각 사안별 찬반 정도

문12

귀하는 다음의 각 사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61.7%(34.8%/매우, 27.0%/별로)로 압도적임
- ▶ ‘교수, 기자, 소설가 등 공인이 동성애 반대, 비판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62.7%(31.7%/매우, 23.8%/별로)로 압도적임
- ▶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9.4%(32.9%/매우, 26.4%/별로)로 압도적임

[그림 12] 각 사례에 대한 찬성 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20대(찬성 : 43.4% > 반대 : 42.1%)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 ‘교수, 기자, 소설가 등 공인이 동성애 반대, 비판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
- ▶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19]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것이라 교육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6.5	20.1	27.0	34.8	26.6	61.7	11.7
성별	남 자	(994)	4.4	19.6	27.6	38.5	24.1	66.1	9.9
	여 자	(1,006)	8.6	20.5	26.4	31.1	29.1	57.4	13.4
연령	20대	(343)	13.8	29.6	24.7	17.4	43.4	42.1	14.5
	30대	(320)	8.3	19.8	27.5	31.1	28.0	58.6	13.3
	40대	(382)	5.7	20.8	27.0	34.1	26.5	61.1	12.4
	50대	(399)	5.1	20.7	26.4	37.3	25.8	63.7	10.4
	60대 이상	(556)	2.7	13.4	28.5	46.1	16.1	74.6	9.3
직업	자영업	(287)	5.8	18.3	26.0	41.0	24.1	67.0	8.9
	블루칼라	(300)	7.1	20.7	26.4	30.4	27.9	56.8	15.4
	화이트칼라	(626)	6.5	22.0	24.2	39.0	28.5	63.2	8.2
	가정주부	(350)	4.5	15.3	32.5	34.2	19.7	66.8	13.5
	학생	(153)	11.4	30.0	27.2	15.0	41.4	42.2	16.4
	무직/기타	(284)	6.6	17.5	27.7	34.9	24.1	62.6	13.3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3.7	11.0	21.0	56.9	14.7	77.9	7.3
	가톨릭교	(189)	5.9	22.1	29.0	35.1	28.0	64.1	7.9
	불교/원불교	(294)	6.1	25.8	30.7	28.5	31.9	59.2	8.9
	기타 종교	(23)	8.5	4.8	38.7	37.8	13.4	76.5	10.1
	종교 없음	(1,053)	7.9	22.3	27.8	27.1	30.2	54.9	14.9
지역	서울	(386)	7.6	19.8	25.4	35.8	27.4	61.3	11.3
	인천/경기	(622)	5.0	21.4	26.0	35.5	26.4	61.5	12.0
	대전/충청/세종	(203)	9.8	23.5	26.9	28.4	33.3	55.3	11.4
	광주/전라	(200)	9.7	16.8	28.5	35.6	26.5	64.1	9.4
	대구/경북	(198)	5.4	15.3	24.3	44.4	20.7	68.7	10.6
	부산/경남/울산	(306)	4.6	19.6	30.1	32.5	24.2	62.7	13.1
	강원/제주	(85)	7.0	23.8	32.7	22.8	30.8	55.6	13.6
이념 성향	보수	(506)	4.0	16.3	26.5	47.3	20.4	73.7	5.9
	중도	(1,010)	5.3	20.6	26.6	31.2	25.9	57.9	16.2
	진보	(483)	11.6	23.0	28.2	29.0	34.7	57.2	8.2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19.2	21.3	7.2	49.4	40.5	56.6	2.9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6.6	23.1	25.8	37.9	29.7	63.7	6.6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5.0	18.0	34.0	31.6	23.0	65.6	11.5
	전혀 모른다	(399)	5.8	18.8	20.8	31.3	24.5	52.1	23.4

[표 20]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교수, 기자, 소설가, 종교지도자 등이 동성애에 반대 시 손해배상 청구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6.3	17.5	31.0	31.7	23.8	62.7	13.6
성별	남 자	(994)	5.9	17.5	29.8	34.9	23.5	64.7	11.8
	여 자	(1,006)	6.6	17.5	32.1	28.5	24.1	60.6	15.3
연령	20대	(343)	9.1	20.2	30.8	23.8	29.3	54.5	16.1
	30대	(320)	7.5	20.0	29.4	29.8	27.5	59.1	13.4
	40대	(382)	8.3	18.0	27.4	30.8	26.3	58.2	15.5
	50대	(399)	5.2	19.0	34.8	30.9	24.2	65.7	10.0
	60대 이상	(556)	3.2	13.0	31.6	38.9	16.2	70.6	13.2
직업	자영업	(287)	4.0	15.5	36.9	32.0	19.5	68.9	11.6
	블루칼라	(300)	7.2	19.3	29.4	30.8	26.5	60.2	13.3
	화이트칼라	(626)	7.4	17.9	29.9	35.0	25.3	65.0	9.7
	가정주부	(350)	3.7	18.2	32.5	29.4	21.9	61.9	16.2
	학생	(153)	8.8	20.3	28.1	21.9	29.1	50.0	20.8
	무직/기타	(284)	7.1	14.3	28.5	33.1	21.4	61.6	17.0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4.3	11.8	23.3	51.9	16.1	75.2	8.7
	가톨릭교	(189)	7.9	17.1	30.9	30.9	25.0	61.9	13.1
	불교/원불교	(294)	7.1	18.1	36.0	23.4	25.2	59.4	15.5
	기타 종교	(23)	9.8	21.7	30.3	22.7	31.5	53.0	15.5
	종교 없음	(1,053)	6.5	19.7	32.8	25.9	26.2	58.7	15.1
지역	서울	(386)	7.1	17.1	29.7	33.2	24.3	62.9	12.9
	인천/경기	(622)	5.1	18.1	29.7	32.4	23.2	62.2	14.6
	대전/충청/세종	(203)	8.9	17.8	32.6	28.0	26.7	60.6	12.7
	광주/전라	(200)	9.2	17.6	30.5	31.7	26.8	62.2	11.0
	대구/경북	(198)	2.1	15.7	33.5	34.4	17.7	67.9	14.4
	부산/경남/울산	(306)	5.9	16.7	33.6	29.6	22.6	63.1	14.3
	강원/제주	(85)	9.0	21.1	27.4	29.6	30.1	57.0	12.8
이념 성향	보수	(506)	3.7	14.3	30.1	42.4	18.0	72.5	9.4
	중도	(1,010)	5.0	18.0	31.1	28.7	22.9	59.8	17.3
	진보	(483)	11.8	19.8	31.6	26.8	31.6	58.3	10.1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20.5	18.3	11.1	47.2	38.8	58.3	2.9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7.3	18.3	32.9	34.7	25.5	67.6	6.8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4.4	17.8	33.6	29.0	22.2	62.6	15.2
	전혀 모른다	(399)	4.2	15.3	28.0	27.4	19.5	55.4	25.1

[표 21] 각 사례에 대한 차별 의견_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5.5	19.1	26.4	32.9	24.6	59.4	16.1
성별	남 자	(994)	4.4	19.5	26.9	34.8	23.8	61.7	14.4
	여 자	(1,006)	6.6	18.7	25.9	31.1	25.3	57.0	17.7
연령	20대	(343)	10.9	26.0	23.0	19.5	36.9	42.5	20.7
	30대	(320)	8.0	16.3	25.6	32.2	24.3	57.9	17.9
	40대	(382)	6.0	18.1	24.0	32.9	24.1	56.9	18.9
	50대	(399)	3.3	22.2	29.9	31.6	25.5	61.4	13.1
	60대 이상	(556)	1.9	14.9	28.3	42.6	16.8	70.9	12.4
직업	자영업	(287)	2.6	22.1	29.7	33.5	24.7	63.2	12.1
	블루칼라	(300)	6.9	18.5	22.2	32.7	25.4	54.8	19.8
	화이트칼라	(626)	5.4	18.2	26.3	36.7	23.6	62.9	13.5
	가정주부	(350)	4.7	14.1	29.2	34.5	18.9	63.8	17.4
	학생	(153)	9.7	22.7	28.7	15.6	32.4	44.3	23.3
	무직/기타	(284)	5.7	22.8	23.3	31.8	28.5	55.1	16.4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2.8	12.2	24.8	51.4	15.0	76.2	8.9
	가톨릭교	(189)	6.5	17.6	28.4	33.1	24.1	61.5	14.4
	불교/원불교	(294)	6.3	21.9	27.5	30.5	28.2	58.0	13.8
	기타 종교	(23)	21.3	8.0	8.1	43.3	29.3	51.4	19.3
	종교 없음	(1,053)	5.8	21.7	26.9	25.6	27.6	52.5	19.9
지역	서울	(386)	5.9	18.0	25.4	36.0	23.9	61.4	14.7
	인천/경기	(622)	5.6	17.5	27.9	32.1	23.2	60.0	16.9
	대전/충청/세종	(203)	5.0	22.9	27.9	27.8	27.9	55.7	16.4
	광주/전라	(200)	7.2	18.8	28.1	33.6	26.1	61.6	12.3
	대구/경북	(198)	4.5	13.3	19.4	44.0	17.8	63.4	18.8
	부산/경남/울산	(306)	5.1	20.9	28.4	29.0	26.0	57.3	16.6
	강원/제주	(85)	3.1	33.7	22.3	24.8	36.8	47.1	16.0
이념 성향	보수	(506)	4.9	13.7	26.4	46.8	18.6	73.2	8.2
	중도	(1,010)	4.2	19.2	26.6	29.1	23.4	55.7	20.9
	진보	(483)	8.7	24.5	26.2	26.4	33.2	52.5	14.3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22.1	15.0	11.8	47.6	37.1	59.4	3.5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6.9	21.5	27.3	34.5	28.4	61.8	9.8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2.7	18.6	30.4	31.6	21.3	62.0	16.7
	전혀 모른다	(399)	3.8	17.0	21.3	28.6	20.8	49.9	29.3

13 국내의 동성혼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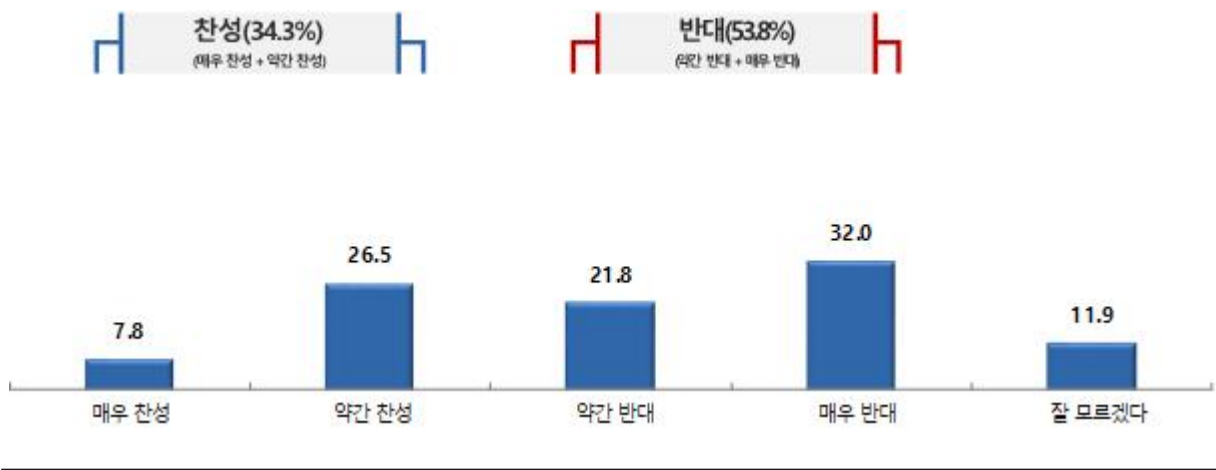
문1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성(性)끼리 결혼하는 동성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 ‘동성끼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3.8%(32.0%/매우, 21.8%/별로)로 찬성 의견(34.8%)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13] 국내 동성혼 찬반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20대(찬성 : 45.8% > 반대 : 39.8%)의 경우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22] 국내 동성혼 찬반여부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7.8	26.5	21.8	32.0	34.3	53.8	11.9
성별	남 자	(994)	6.5	26.3	21.1	36.9	32.8	58.0	9.2
	여 자	(1,006)	9.0	26.7	22.4	27.2	35.8	49.7	14.6
연령	20대	(343)	16.0	29.8	17.3	22.5	45.8	39.8	14.4
	30대	(320)	8.3	24.8	22.2	30.8	33.0	52.9	14.1
	40대	(382)	8.5	27.7	22.6	28.8	36.2	51.4	12.4
	50대	(399)	5.0	26.6	23.0	32.7	31.7	55.7	12.6
	60대 이상	(556)	3.9	24.5	22.9	40.5	28.4	63.4	8.2
직업	자영업	(287)	9.0	27.1	21.2	33.4	36.1	54.7	9.3

	블루칼라	(300)	8.6	29.2	21.1	27.5	37.9	48.6	13.6
	화이트칼라	(626)	6.6	28.4	21.4	34.4	35.0	55.9	9.1
	가정주부	(350)	4.8	24.3	23.9	33.5	29.1	57.4	13.5
	학생	(153)	17.0	23.9	17.6	25.1	40.9	42.6	16.5
	무직/기타	(284)	6.9	23.0	23.4	32.2	29.9	55.7	14.4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5.6	18.4	19.7	51.6	24.0	71.3	4.7
	가톨릭교	(189)	6.0	29.6	24.2	32.2	35.6	56.4	8.0
	불교/원불교	(294)	9.9	28.9	24.2	29.7	38.9	53.9	7.2
	기타 종교	(23)	13.2	0.0	3.6	59.2	13.2	62.8	24.0
	종교 없음	(1,053)	8.3	29.3	22.0	23.9	37.5	45.8	16.7
지역	서울	(386)	6.7	27.8	22.0	31.6	34.5	53.5	12.0
	인천/경기	(622)	6.5	25.7	22.8	32.2	32.2	55.0	12.8
	대전/충청/세종	(203)	11.7	30.1	24.0	27.3	41.8	51.3	6.9
	광주/전라	(200)	10.3	23.1	24.2	32.5	33.4	56.7	9.9
	대구/경북	(198)	6.3	25.6	17.5	38.6	31.9	56.1	12.0
	부산/경남/울산	(306)	7.4	26.4	20.7	31.6	33.9	52.3	13.9
	강원/제주	(85)	11.6	28.3	16.5	29.5	40.0	46.1	14.0
이념 성향	보수	(506)	6.2	21.2	20.0	46.1	27.4	66.1	6.5
	중도	(1,010)	6.6	26.0	23.5	28.1	32.6	51.6	15.7
	진보	(483)	11.9	33.0	20.0	25.6	44.9	45.6	9.6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20.9	23.3	10.5	42.6	44.2	53.1	2.7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8.6	30.7	19.7	34.2	39.3	53.9	6.8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6.2	25.0	26.9	30.4	31.2	57.3	11.5
	전혀 모른다	(399)	5.6	23.3	18.5	28.5	28.9	47.0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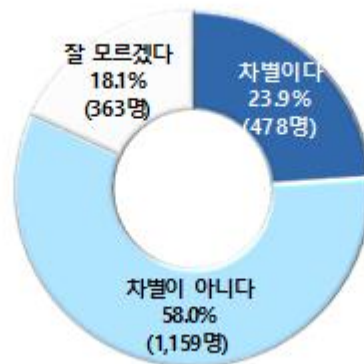
14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서비스 거절 사례 차별의견

문14

영국의 실제 사례입니다. 2014년 평소 동성애를 반대하는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로부터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이후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영국대법원은 동성애 차별금지보다 종교적 자유가 우선한다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귀하는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 지지 케이크 주문을 받았을 때 종교적 신념으로 거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지지 케이크 주문을 종교적 신념으로 거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8.0%로 “차별이다”라는 의견(23.9%)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14]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절한 사례가 차별인지의 여부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23]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절한 사례가 차별인지의 여부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000)	23.9	58.0	18.1
성별	남 자	(994)	22.1	62.3	15.6
	여 자	(1,006)	25.7	53.7	20.6
연령	20대	(343)	28.3	48.5	23.2
	30대	(320)	24.5	57.1	18.4
	40대	(382)	24.2	60.5	15.3
	50대	(399)	23.2	56.8	20.0
	60대 이상	(556)	21.1	63.4	15.5
직업	자영업	(287)	19.8	63.2	17.0
	블루칼라	(300)	26.9	54.1	19.0
	화이트칼라	(626)	25.8	61.2	12.9
	가정주부	(350)	20.4	57.3	22.4
	학생	(153)	24.4	47.9	27.8
	무직/기타	(284)	24.7	55.9	19.3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16.7	70.9	12.4
	가톨릭교	(189)	26.0	59.0	14.9
	불교/원불교	(294)	28.6	54.9	16.5
	기타 종교	(23)	35.7	39.6	24.7
	종교 없음	(1,053)	25.0	53.6	21.4
지역	서울	(386)	25.9	57.8	16.3

	인천/경기	(622)	21.0	60.1	18.8
	대전/충청/세종	(203)	26.5	53.8	19.7
	광주/전라	(200)	27.5	53.2	19.3
	대구/경북	(198)	19.6	64.4	16.0
	부산/경남/울산	(306)	21.5	59.6	18.9
	강원/제주	(85)	39.9	43.1	17.0
이념 성향	보수	(506)	22.2	66.6	11.2
	중도	(1,010)	22.5	54.7	22.8
	진보	(483)	28.5	55.8	15.6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40.9	56.8	2.2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6.5	62.1	11.3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22.4	56.8	20.8
	전혀 모른다	(399)	17.5	53.5	29.1

15 각 사안별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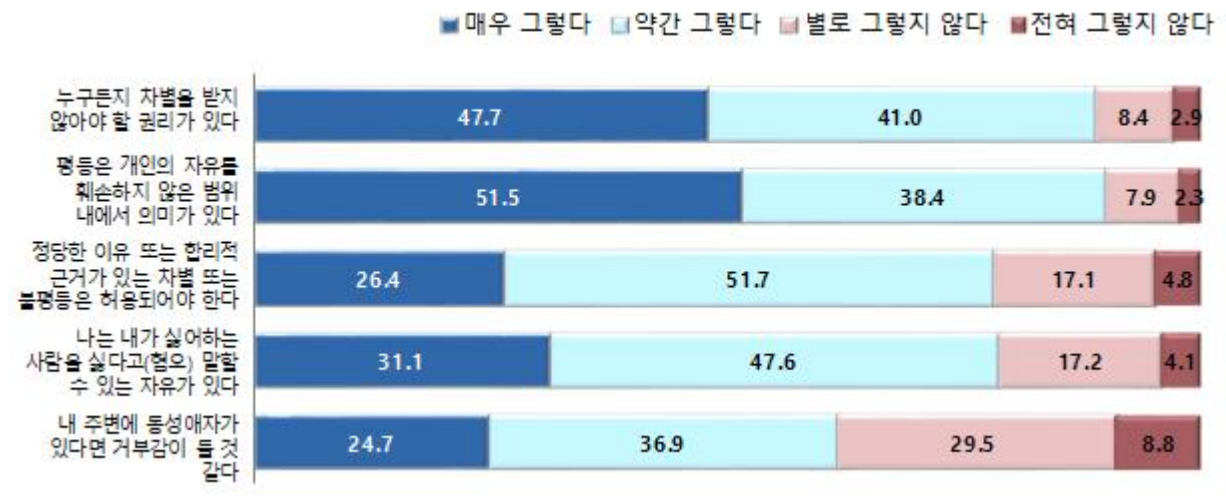
문15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88.8%가 긍정(47.7%/매우, 41.0%/약간) 응답을 보임
- ▶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89.8%가 긍정(51.5%/매우, 38.4%/약간) 응답을 보임
- ▶ ‘정당한 차별 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불평등의 허용’에 대해서는 78.1%가 긍정(26.4%/약간, 51.7%/약간) 응답을 보임
- ▶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혐오한다고 말할 자유’에 대해서는 78.7%가 긍정(31.1%/매우, 47.6%/약간) 응답을 보임
- ▶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거부감이 들 것 같다’에 대해서는 61.7%가 긍정(24.7%/매우, 36.9%/약간) 응답을 보임

[그림 15] 각 항목에 관한 의견

(Base : 전체, N=2,000, 단위 : %)



- ▶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압도적임
- ▶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압도적임
- ▶ ‘정당한 차별 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불평등의 허용’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압도적임
- ▶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혐오한다고 말할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응답이 압도적임
- ▶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거부감이 들 것 같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20대(긍정 : 48.2% < 부정 : 51.8%)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결과

[표 24] 각 항목에 관한 의견_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0)	47.7	41.0	8.4	2.9	88.8	11.2
성별	남 자	(994)	49.9	38.0	8.8	3.3	87.9	12.1
	여 자	(1,006)	45.6	44.0	7.9	2.5	89.6	10.4
연령	20대	(343)	52.8	36.1	7.3	3.8	88.9	11.1
	30대	(320)	44.5	40.1	11.8	3.7	84.6	15.4
	40대	(382)	45.1	43.0	9.5	2.4	88.1	11.9
	50대	(399)	48.2	42.1	6.8	2.9	90.3	9.7
	60대 이상	(556)	47.9	42.5	7.4	2.2	90.4	9.6

직업	자영업	(287)	45.4	46.1	5.1	3.5	91.5	8.5
	블루칼라	(300)	49.8	35.4	12.2	2.7	85.2	14.8
	화이트칼라	(626)	48.9	38.5	9.7	3.0	87.4	12.6
	가정주부	(350)	42.2	48.6	7.7	1.6	90.8	9.2
	학생	(153)	46.6	41.2	7.3	4.9	87.8	12.2
	무직/기타	(284)	52.8	38.1	6.1	2.9	91.0	9.0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42.1	43.0	10.7	4.2	85.1	14.9
	가톨릭교	(189)	53.3	37.2	9.1	0.4	90.5	9.5
	불교/원불교	(294)	46.2	41.9	8.0	4.0	88.0	12.0
	기타 종교	(23)	60.9	29.7	4.2	5.2	90.6	9.4
	종교 없음	(1,053)	49.2	40.9	7.4	2.4	90.1	9.9
지역	서울	(386)	42.5	43.9	10.9	2.8	86.4	13.6
	인천/경기	(622)	48.5	41.1	6.9	3.5	89.6	10.4
	대전/충청/세종	(203)	52.2	36.2	8.2	3.3	88.5	11.5
	광주/전라	(200)	46.8	41.3	9.2	2.7	88.2	11.8
	대구/경북	(198)	48.4	42.5	7.0	2.0	90.9	9.1
	부산/경남/울산	(306)	48.8	40.0	8.4	2.7	88.9	11.1
	강원/제주	(85)	51.2	38.9	8.5	1.4	90.1	9.9
이념 성향	보수	(506)	43.3	40.8	11.7	4.3	84.1	15.9
	중도	(1,010)	45.7	43.1	8.2	2.9	88.8	11.2
	진보	(483)	56.5	37.0	5.1	1.4	93.5	6.5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61.0	22.3	9.3	7.4	83.3	16.7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48.4	40.6	8.4	2.5	89.1	10.9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44.9	44.9	9.2	1.1	89.7	10.3
	전혀 모른다	(399)	48.3	39.6	6.2	5.8	87.9	12.1

[표 25] 각 항목에 관한 의견_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0)	51.5	38.4	7.9	2.3	89.8	10.2
성별	남 자	(994)	54.8	35.0	7.7	2.5	89.8	10.2
	여 자	(1,006)	48.1	41.8	8.1	2.0	89.9	10.1
연령	20대	(343)	51.1	36.2	8.7	4.0	87.3	12.7
	30대	(320)	44.9	43.4	9.6	2.1	88.3	11.7
	40대	(382)	49.0	41.3	7.9	1.8	90.2	9.8
	50대	(399)	50.4	40.4	6.8	2.4	90.8	9.2
	60대 이상	(556)	57.9	33.4	7.1	1.6	91.3	8.7
직업	자영업	(287)	56.8	34.8	7.0	1.4	91.6	8.4
	블루칼라	(300)	47.3	40.1	9.9	2.7	87.4	12.6
	화이트칼라	(626)	51.2	38.0	8.9	1.9	89.2	10.8
	가정주부	(350)	47.4	44.7	6.3	1.6	92.1	7.9

	학생	(153)	51.7	35.5	7.1	5.7	87.2	12.8
	무직/기타	(284)	55.8	34.9	6.7	2.5	90.8	9.2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50.6	36.9	9.5	3.0	87.5	12.5
	가톨릭교	(189)	56.4	37.2	5.4	1.0	93.6	6.4
	불교/원불교	(294)	49.0	39.7	9.8	1.5	88.7	11.3
	기타 종교	(23)	65.6	29.3	5.2	0.0	94.8	5.2
	종교 없음	(1,053)	51.3	39.0	7.2	2.4	90.3	9.7
지역	서울	(386)	49.0	38.7	9.6	2.8	87.6	12.4
	인천/경기	(622)	55.0	36.8	5.6	2.6	91.8	8.2
	대전/충청/세종	(203)	53.1	34.8	10.3	1.8	87.9	12.1
	광주/전라	(200)	50.8	40.7	7.5	1.0	91.5	8.5
	대구/경북	(198)	49.0	41.9	6.5	2.6	90.9	9.1
	부산/경남/울산	(306)	47.5	40.7	9.8	2.0	88.2	11.8
	강원/제주	(85)	54.8	35.3	8.5	1.4	90.1	9.9
이념 성향	보수	(506)	51.2	40.7	5.6	2.5	91.9	8.1
	중도	(1,010)	49.6	38.9	9.0	2.4	88.6	11.4
	진보	(483)	55.5	34.8	7.9	1.8	90.3	9.7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63.8	20.5	8.1	7.7	84.2	15.8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53.8	34.9	10.0	1.4	88.7	11.3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49.7	42.4	6.9	1.0	92.1	7.9
	전혀 모른다	(399)	47.3	41.6	6.2	4.8	89.0	11.0

[표 26] 각 항목에 관한 의견_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0)	26.4	51.7	17.1	4.8	78.1	21.9
성별	남 자	(994)	27.9	49.2	17.9	5.1	77.1	22.9
	여 자	(1,006)	24.9	54.3	16.2	4.6	79.1	20.9
연령	20대	(343)	27.0	48.3	18.6	6.2	75.2	24.8
	30대	(320)	22.9	53.4	20.3	3.4	76.3	23.7
	40대	(382)	24.9	54.5	15.3	5.4	79.3	20.7
	50대	(399)	26.2	50.6	16.9	6.3	76.8	23.2
	60대 이상	(556)	29.2	51.8	15.6	3.4	81.0	19.0
직업	자영업	(287)	25.3	49.2	20.3	5.2	74.5	25.5
	블루칼라	(300)	25.1	49.1	18.5	7.3	74.2	25.8
	화이트칼라	(626)	28.0	50.4	17.7	3.9	78.4	21.6
	가정주부	(350)	25.2	60.2	11.2	3.4	85.4	14.6
	학생	(153)	25.9	51.5	17.0	5.6	77.4	22.6
	무직/기타	(284)	26.8	49.8	18.1	5.4	76.5	23.5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33.0	46.8	16.2	4.0	79.8	20.2

	가톨릭교	(189)	29.9	47.4	18.5	4.2	77.3	22.7
	불교/원불교	(294)	23.6	54.0	18.2	4.1	77.6	22.4
	기타 종교	(23)	49.8	45.0	5.2	0.0	94.8	5.2
	종교 없음	(1,053)	23.2	54.1	17.1	5.6	77.3	22.7
지역	서울	(386)	24.8	51.7	18.1	5.3	76.6	23.4
	인천/경기	(622)	26.9	53.4	15.5	4.2	80.3	19.7
	대전/충청/세종	(203)	25.4	50.6	18.0	6.0	76.0	24.0
	광주/전라	(200)	32.6	45.1	20.8	1.5	77.7	22.3
	대구/경북	(198)	28.9	49.9	15.0	6.3	78.8	21.2
	부산/경남/울산	(306)	22.5	54.5	16.9	6.1	77.0	23.0
	강원/제주	(85)	25.5	52.3	17.6	4.6	77.8	22.2
이념 성향	보수	(506)	31.1	54.2	11.0	3.7	85.3	14.7
	중도	(1,010)	23.8	52.3	19.7	4.2	76.1	23.9
	진보	(483)	26.8	47.9	18.0	7.3	74.8	25.2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53.9	28.5	11.4	6.3	82.3	17.7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6.3	50.2	18.9	4.6	76.5	23.5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21.8	57.8	16.9	3.5	79.6	20.4
	전혀 모른다	(399)	27.5	49.1	15.8	7.6	76.6	23.4

[표 27] 각 항목에 관한 의견_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고(혐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0)	31.1	47.6	17.2	4.1	78.7	21.3
성별	남 자	(994)	36.0	42.8	17.0	4.2	78.8	21.2
	여 자	(1,006)	26.2	52.3	17.4	4.0	78.6	21.4
연령	20대	(343)	30.3	45.7	17.9	6.1	76.0	24.0
	30대	(320)	26.9	49.5	18.9	4.7	76.4	23.6
	40대	(382)	32.6	43.8	20.6	2.9	76.5	23.5
	50대	(399)	32.8	45.1	16.1	6.0	77.9	22.1
	60대 이상	(556)	31.7	51.9	14.3	2.0	83.7	16.3
직업	자영업	(287)	32.3	49.8	11.4	6.5	82.2	17.8
	블루칼라	(300)	34.6	39.4	22.0	4.0	74.0	26.0
	화이트칼라	(626)	31.1	47.7	17.8	3.3	78.9	21.1
	가정주부	(350)	26.2	54.6	16.6	2.7	80.7	19.3
	학생	(153)	29.5	49.0	15.1	6.5	78.4	21.6
	무직/기타	(284)	33.0	44.3	18.6	4.1	77.3	22.7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36.3	47.4	12.9	3.3	83.7	16.3
	가톨릭교	(189)	37.1	45.8	14.1	3.1	82.9	17.1
	불교/원불교	(294)	25.7	51.0	20.1	3.3	76.7	23.3
	기타 종교	(23)	54.6	32.6	4.0	8.8	87.2	12.8

	종교 없음	(1,053)	28.8	47.3	19.1	4.8	76.2	23.8
지역	서울	(386)	30.6	48.3	16.3	4.9	78.9	21.1
	인천/경기	(622)	30.3	50.5	14.3	4.8	80.8	19.2
	대전/충청/세종	(203)	33.0	48.5	13.9	4.5	81.5	18.5
	광주/전라	(200)	32.5	41.6	23.3	2.6	74.1	25.9
	대구/경북	(198)	38.5	43.1	15.4	3.0	81.6	18.4
	부산/경남/울산	(306)	28.1	46.6	22.0	3.4	74.7	25.3
	강원/제주	(85)	24.9	48.6	23.3	3.2	73.6	26.4
이념 성향	보수	(506)	37.6	45.4	14.6	2.3	83.1	16.9
	중도	(1,010)	28.3	48.9	18.1	4.8	77.2	22.8
	진보	(483)	30.1	47.1	18.2	4.6	77.3	22.7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51.5	32.8	8.7	7.1	84.2	15.8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31.9	45.6	18.1	4.3	77.5	22.5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26.7	52.9	17.8	2.6	79.6	20.4
	전혀 모른다	(399)	32.5	44.7	17.0	5.8	77.1	22.9

[표 28] 각 항목에 관한 의견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거부감이 들 것 같다

(단위 : %) *소규모 표본 해석 유의

		사례수(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0)	24.7	36.9	29.5	8.8	61.7	38.3
성별	남 자	(994)	28.1	39.2	27.1	5.5	67.3	32.7
	여 자	(1,006)	21.4	34.7	31.9	12.1	56.1	43.9
연령	20대	(343)	18.7	29.4	34.8	17.0	48.2	51.8
	30대	(320)	21.3	39.6	29.4	9.8	60.8	39.2
	40대	(382)	22.9	36.3	30.2	10.5	59.3	40.7
	50대	(399)	24.2	39.4	28.8	7.6	63.6	36.4
	60대 이상	(556)	32.1	38.6	26.4	3.0	70.7	29.3
직업	자영업	(287)	26.3	40.3	27.2	6.2	66.6	33.4
	블루칼라	(300)	24.1	35.0	32.3	8.6	59.1	40.9
	화이트칼라	(626)	26.0	34.7	31.0	8.3	60.7	39.3
	가정주부	(350)	24.1	40.6	26.1	9.1	64.7	35.3
	학생	(153)	16.2	37.0	29.1	17.7	53.2	46.8
	무직/기타	(284)	26.3	35.8	30.1	7.8	62.1	37.9
종교	기독교(개신교)	(441)	39.6	36.4	18.3	5.7	76.0	24.0
	가톨릭교	(189)	27.3	38.2	27.6	6.8	65.5	34.5
	불교/원불교	(294)	21.1	38.9	33.3	6.6	60.0	40.0
	기타 종교	(23)	40.8	34.9	19.6	4.7	75.7	24.3
	종교 없음	(1,053)	18.7	36.4	33.7	11.2	55.1	44.9
지역	서울	(386)	26.6	35.1	29.4	9.0	61.7	38.3
	인천/경기	(622)	22.6	39.0	29.8	8.6	61.6	38.4

	대전/충청/세종	(203)	22.1	33.7	31.1	13.0	55.8	44.2
	광주/전라	(200)	23.1	39.3	28.1	9.5	62.4	37.6
	대구/경북	(198)	32.1	38.8	21.7	7.3	70.9	29.1
	부산/경남/울산	(306)	24.7	36.3	31.4	7.6	61.0	39.0
	강원/제주	(85)	25.3	30.0	39.0	5.8	55.3	44.7
이념 성향	보수	(506)	36.6	38.5	21.8	3.1	75.1	24.9
	중도	(1,010)	21.8	36.4	32.1	9.6	58.3	41.7
	진보	(483)	18.4	36.3	32.2	13.1	54.7	45.3
차별금지법 인지정도	매우 잘 안다	(117)	55.0	19.6	12.8	12.6	74.6	25.4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686)	23.7	37.7	29.9	8.6	61.4	38.6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797)	22.6	40.3	29.7	7.5	62.9	37.1
	전혀 모른다	(399)	21.9	33.9	33.4	10.8	55.8	44.2

부록. 조사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ver5 0806)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연 령 : 1) 만19~29세 → 만 18세 이하 면접중단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 성 별 : 1) 남자 2) 여자

문1)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문2) 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3) 귀하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3.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4. 전혀 모른다

■ 다음은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글을 읽으신 후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서 현재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33 개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 등 23 개 사유를 포함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주장>

1.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차별을 정한 개별법이 존재하나,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모든 차별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4. 성별, 나이, 성적지향 등 모든 차별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의 권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

1. '차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위축된다.
2. 현행 33 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다.
3.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소수자의 평등권을 우위에 둬서 역차별과 건전한 가족체계의 파괴가 우려된다.
4. 피해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가해자는 그러한 차별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묻지마 고발'이 남발되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
5. 다양한 인종과 종교들이 혼재해 있는 유럽의 경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높지만,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연방법 차원에서 이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문 4)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경력단절여성법, 외국인고용법 등 33 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오늘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모르고 있었다

문 5) 차별금지법과 관련,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33 개 이상 이미 실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개별법을 보완하면 되므로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성소수자와 제 3 의 성을 용인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약간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 6)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나 신천지 등의 종교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1. 매우 공감한다 2. 약간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 잘 모르겠다

문 7)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은 다음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1. 소수자나 다수자가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문 8)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요, 귀하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복 가능)

1.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
2.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3.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4. 기타 ()

5. 잘 모르겠다

문 9) 지금까지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주장과 반대 주장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귀하는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3. 약간 반대 4. 매우 반대 5. 잘 모르겠다

문 10) 다음의 의견들에 대해 귀하는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용하기 어려우십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수용할 수 있다 2. 수용하기 어렵다 3. 잘 모르겠다

1. 헌법, 민법, 가족관계법에 명시된 '남녀'라는 '성별' 외에 제 3의 성 '젠더'를 추가하는 것..()

2.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트랜스젠더)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할 경우

여성목욕탕, 여성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여성 스포츠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

3. 유치원과 초중고학생들에게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문 11) 귀하는 다음의 각각에 대해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차별이다 2. 차별이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1.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뽑는 것()

2. 회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뽑지 않는 것.....()

3. 도덕적 판단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것()

4. 종교단체에서 사이버 이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5. 의과대 교수가 에이즈 발생원인의 주된 원인이 남성 동성애 행위라고 강의하는 것.....()

문 12) 귀하는 다음의 각 사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3. 약간 반대 4. 매우 반대 5. 잘 모르겠다

1.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2. 교수, 기자, 소설가, 종교지도자 등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

3. 내 자녀의 학교(유치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것.....()

문 1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성(性)끼리 결혼하는 동성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3. 약간 반대 4. 매우 반대 5. 잘 모르겠다

문 14) 영국의 실제 사례입니다. 2014 년 평소 동성애를 반대하는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로부터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이후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18 년 영국대법원은 동성애 차별금지보다 종교적 자유가 우선한다고 제과점 주인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귀하는 제과점 주인이 동성혼 지지 케익 주문을 받았을 때 종교적 신념으로 거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차별이다 2. 차별이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문 15)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1.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
2.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
3.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4.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고(혐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5.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거부감이 들 것 같다()

*** 통계 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님은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1. 기독교(개신교) 2. 가톨릭교 3. 불교/원불교 4. 기타 종교 5. 종교없음

DQ2)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농업/임업/어업 | 6. 전문직 |
| 2. 자영업 | 7. 가정주부 |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8. 학생 |
| 4. 생산/기능/노무직 | 9. 무직/퇴직/기타 |
| 5. 사무/관리 | 10. 무응답 |

DQ3) ○○님택의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의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DQ4) ○○님의 이념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매우 보수적 2. 다수 보수적 3. 보수도 진보도 아님 4. 다소 진보적 5. 매우 진보적

DQ5) [DQ1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님께서서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깊지 않다 2. 별로 깊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깊다 5. 매우 깊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